

# ANGKAL TEAM IN CAMBODIA

## FINAL REPORT

SEYHA

DARA

PKAY

BOPHA

CHARIYA



오정석

박정근

박정은

박재희

정유선

# CONTENTS

FIRST

YLC

YMCA LEARNING CENTER

SECOND

YI

YOUTH INSTITUTION

THIRD

OPA

OLD PEOPLE ASSOCIATION

FOURTH

HOME STAYING

FIF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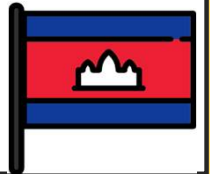
ATTI PROJECT

SIXTH

MEMORY IN  
CAMBODIA

SEVEN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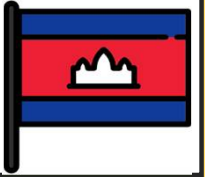
FEELING



# 1. YLC (YMCA LEARNING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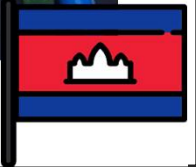


1. YLC란 무엇인가?
2. YLC에서의 교육활동
3. YLC 환경개선
4. YLC아이들과 함께 보낸  
할로윈과 크리스마스



## 1-1. YLC란 무엇인가?

YLC는 캄보디아 YMCA가 운영하고 있는 사립 학교입니다. 4세~13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이들은 영어 수준에 따라 반이 나뉩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의 아이들이 각 반에서 크메르 어, 영어, 체육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수업을 진행하는 캄보디아 YMCA의 핵심 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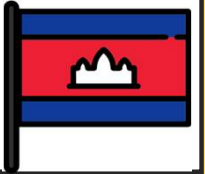




## 1-2. 교육활동 - 영어수업 IN Y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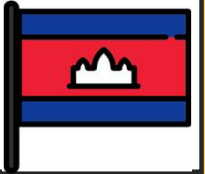
캄보디아 YMCA에서 앵콜팀은 2개의 반에서 영어 수업을 5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한 반은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문법, 어려운 단어, 회화 위주로 공부 계획을 짰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수업계획을 짜서 다양한 영어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다른 한 반은 아예 영어가 서툰 친구들이 많아서 쉬운 단어, 회화 위주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영어와 친밀하게 만드는 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영어 게임을 통해서 영어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활동들을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 1-2. 교육활동 - 미술수업 IN Y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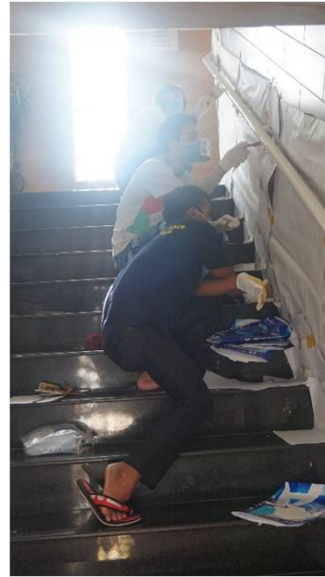


정은 단원이 미술 선생님을 맡아 아이들에게 미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데칼코마니, 왕관 만들기, 슬리퍼 만들기 등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며 아이들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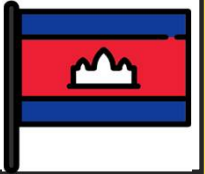
### 1-3. YLC 환경개선



노후했던 YLC 시설을 위해서 앵콜 팀은 YLC 환경개선을 결심했습니다.

페인트칠을 통해서 아이들의 수업환경을 개선하고 복도, 난간 등을 칠해서 더욱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앵콜팀의 환경개선 프로그램으로 인해 아이들이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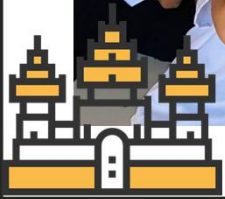
## 1-4. YLC아이들과 함께 보낸 할로윈과 크리스마스

할로윈, 크리스마스 때 YLC 아이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앵콜팀은 해왔습니다. 할로윈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앵콜팀이 직접 분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캔디, 초콜렛을 나눠주고 풍선을 불어보는 활동을 하였고,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아이들을 위해 산타로 변신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보물 찾기를 기획하면서 아이들의 즐거움을 한층 높여줬습니다. 할로윈, 크리스마스 행사로 인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선물해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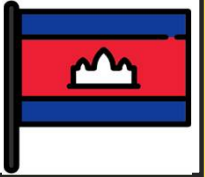
## 2. YI (YOUTH INSTITUTION)



1. YI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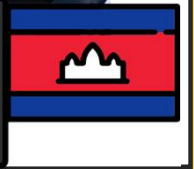
2. YI에서의 교육활동

3. YI 아이들과 보낸 할로윈



## 2-1. YI란 무엇인가?

YI(Youth Institution)는 길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YMCA에 소속된 학교입니다. 오전 8시~11시 / 오후 2시~5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전과 오후 사이에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YI에 오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며 매일 평균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옵니다. YI 청소와 체조 및 양치질 일과가 시작하고 취학 전 아이들의 경우 1층에서 크메르어 글쓰기, 말하기, 숫자 등을 배우고 초등학생의 경우 3층에서 현지 선생님인 thida와 영어 수업 / 크메르어 수업 / 수학수업을 한 후 컴퓨터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 2-2. 교육활동 - 영어 수업 IN YI

주요 앵글팀이 활동하는 곳은 3층이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3층은 학생들의 나이에 따라 분별되어 있는 것이 아닌 같은 한 공간에서 수업들을 듣고 있습니다. 현지 선생님인 thida가 천차만별인 아이들의 수준을 한번에 가르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앵글팀과 thida가 수준을 나눠 각각 테이블별 아이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자신의 맞는 수업을 듣고 따라갈 수 있게 되었지만 교실과 칠판이 하나라는 점은 앵글팀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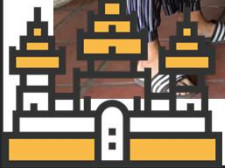
영어 수업이 있는 화요일과 목요일 전날까지 thida와 현지 director인 nimey에게 수업 계획을 보내 조율을 한 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크메르어를 못하는 앵글팀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이 완벽한 이해를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현지 선생님과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 2-2. 교육활동 - 미술수업 IN YI

적어도 2주에 한번씩은 미술활동을 하며 아이들이 지겨운 수업에서 벗어나 자신의 창의력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들기 수업의 경우 그저 버릴 수 있는 쓰레기(플라스틱, 이면지 등)를 만들기 수업을 통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인식을 같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미술수업에 집중하며 작은 손으로 하나하나 무언가를 붙이고 색칠하고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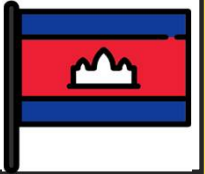




## 2-2. 교육활동 - 컴퓨터 수업 IN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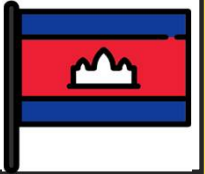
컴퓨터 수업의 경우 포토샵으로 유선 단원이 전담하여 수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포토샵이라는 것이 낯설어 수업을 하는 도중에 나가기도, 유튜브를 시청하기도 하였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적응을 한 후에는 스스로 포토샵을 하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수업 도안을 계획하였고 아이들이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 모습, 유선 단원을 보면 컴퓨터! 컴퓨터!라 말하면서 컴퓨터 수업을 해달라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2-2. 교육활동 - 체육수업 IN YI



평소 야외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2주에 1번씩 체육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 외에도 줄넘기, 훌라후프 등 다양한 체육수업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페어플레이, 줄을 설명하여 배려심, 정직함을 지키게 하는 마음가짐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아이들을 통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수업을 계속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뿌듯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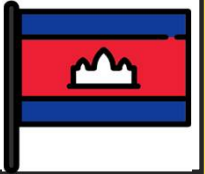




## 2-2. 교육활동 - 요리 수업 IN YI



YI는 길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라 앵콜팀은 아이들이 더 많이 먹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요리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었고 더불어 한국 요리인 김밥을 통해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가져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예상한 아이들보다 더 많이 와 당황을 하기도, 껌을 싫어한다는 것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넣고 김밥을 말며 즐거운 추억을 선물한 것 같아 아이들도 앵콜팀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 2-3. YI아이들과 함께 보낸 할로윈데이

10월 31일 할로윈데이를 맞아 YI에서 소소하게 할로윈 파티를 열었습니다. YI에 준비한 풍선 및 그림들로 할로윈 분위기를 내도록 꾸몄고 양파깅 먹기, 밀가루 속 사탕 먹기 게임들을 통해 아이들이 할로윈데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할로윈의 대망인 trick or treat을 보물 찾기를 통해 짝지를 찾아오면 사탕과 초콜릿으로 바꿔 주는 이벤트도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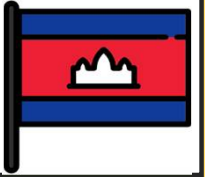




### 3. OPA (OLD PEOPLE ASSOCIATION)



1. OPA란 무엇인가?
2. OPA 방문 및 상담
3. Physical exercising
4. Cooking
5. Photo studio



### 3-1. OPA란 무엇인가?

OPA는 Old People Association으로 캄보디아 수도에 살고 있는 빈곤층이자 70세 이상 노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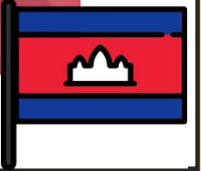
노인분들께서는 일을 하러 간 자식들을 대신하여 손주들을 돌보며 특별한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은 병으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 자식이 없는 분, 집이 없어 이웃집에 사시는 분 등 다양한 형태의 빈곤을 가진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캄보디아 YMCA에서는 6곳의 공동체와 협력을 맺고 지속적인 관찰과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해 노인의 날을 맞아 큰 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를 통해 캄보디아 빈곤층 노인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3-2. OPA방문 및 상담

저희 앵글팀은 OPA 6곳을 방문하며 노인분들을 만나 뵙고 캄보디아 복지의 실태 파악과 노인분들이 가진 여러 문제와 고민 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없기도 하고 노인들을 위한 일거리도 없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사회적으로도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대해 알게 되고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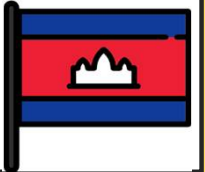
### 3-3. Physical exercising



저희 앵골팀은 격주 주말 이른 아침에 OPA 커뮤니티를 방문하여 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OPA에 방문하여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OPA 담당자와 회의한 결과 노인들의 신체적 움직일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 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노인들의 체력이 좋지 않으셨고 간단한 움직임을 요구하셨기에 쉽고 간단하게 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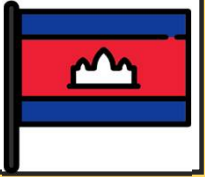




## 3-4. C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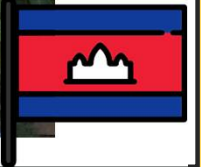


OPA 커뮤니티에 방문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음식인 '비빔밥'에 대해 알려드리고 같이 조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노인분들 인원수에 있어 OPA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 식자재 준비에 차질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문제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활동부터는 인원수에 있어 정확히 전달이 되어 차질 없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웃는 얼굴과 저희 프로그램으로 OPA분들을 모두 초청하여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 3-5. Photo studio

End Poverty 활동을 준비하다 빈곤의 개념을 정신적 빈곤으로 잡고 캠페인을 준비하다 OPA 가정을 방문했을 때 노인분들의 방에 가족사진과 개인 사진이 있지 않은 가구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이를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진행하였습니다. 캠페인 진행 이후에도 OPA 커뮤니티에 방문하여 어르신 개인 사진과 가족사진을 찍어드리고 인화하여 어르신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며 노인분들의 환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고 어르신들에게 인화한 사진을 드리며 대화했던 것들이 모두 인상 깊었습니다. OPA 담당자도 노인분들 찍은 사진을 달라 하시며 차후 활동에 활용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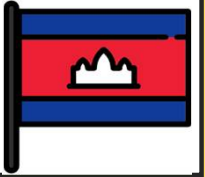
## 4. HOME STAYING



1. 홈스테이 1일차

2. 홈스테이 2일차

3. 홈스테이 3일차~4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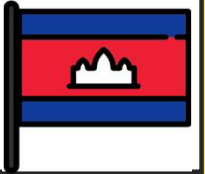


## 4-1. 홈스테이 1일차



→ 지금이 쉬는 시간인지, 점심시간인지 몰라 대신  
침으로 허기를 달래는 앵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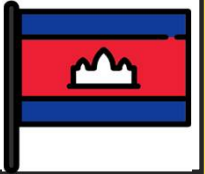
씨엠립으로 가기 위해 6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6시간 동안 버스를 타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가득했  
지만 생각보다 편안한 의자, 포장된 도로로 안전하게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씨엠립에 도착을 한 후에는 프놈펜을 떠나 씨엠립에  
서 살고 있는 우리의 친구, lot을 만나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 4-2. 홈스테이 2일차



씨엠립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날이 밝아오자 본격적으로 홈스테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일은 옥수수 심기였습니다. 우리가 묵고 있는 숙소 앞의 땅에서 옥수수 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난생처음 겪어보는 옥수수 심기를 어떻게 하나 싶었지만 할머니의 도움과 설명으로 차근차근해 나아갔습니다. 비록 서툴러 중간중간 옥수수를 뽑아 버리기도 하였지만 일을 다 끝내자 뿌듯한 팀원들의 웃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 4-3. 홈스테이 3일차~4일차

씨엠립 YMCA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 후 새로운 아이들을 맞이할 단장에 앵콜팀이 함께하였습니다. 정문 담장, 건물 외벽 그리고 실내 벽까지 4개월 동안 쌓아온 내공으로 페인트를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으로 누렇게 된 벽들이 페인트 하나만으로도 화사해졌고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페인트를 끝으로 크리스마스 전날과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불평하나 없이 홈스테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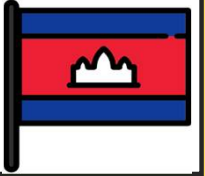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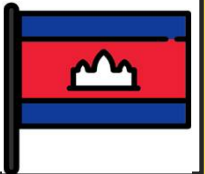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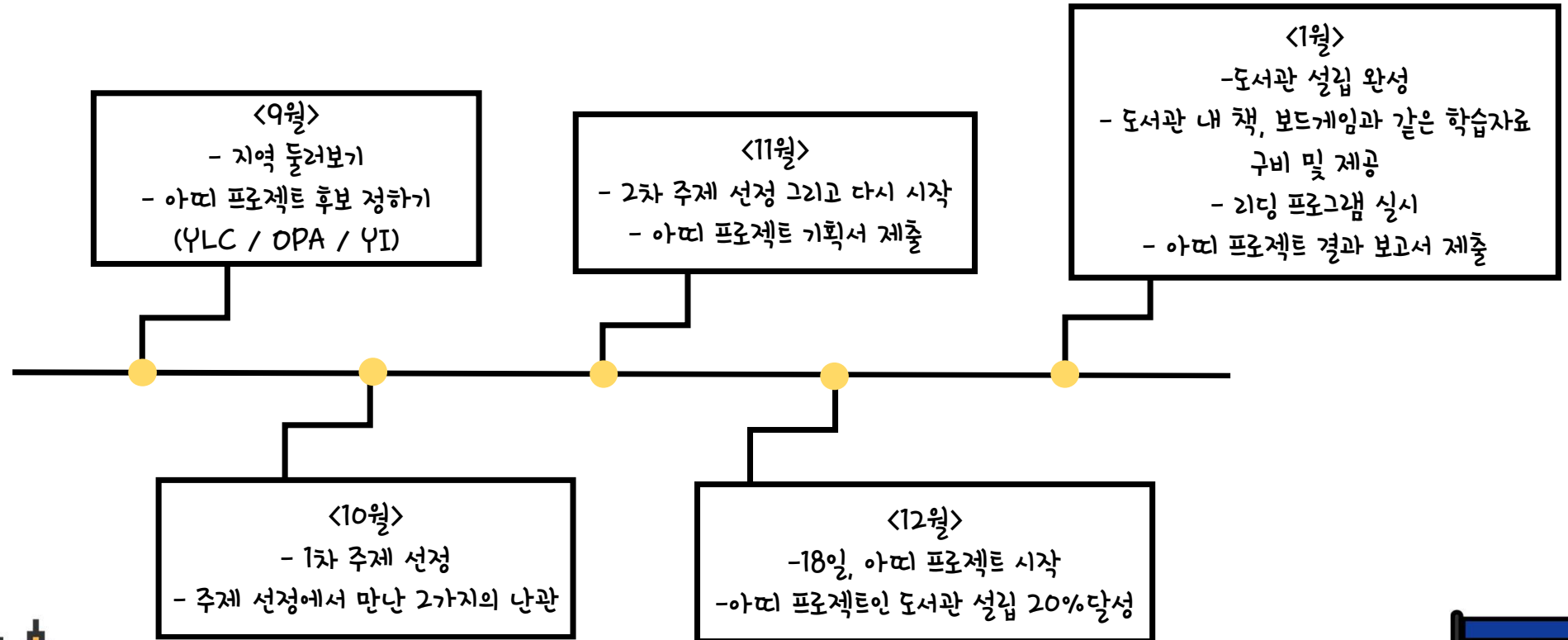
## 5. ATTI PROJECT



1. 타임라인
2. 1차 주제 선정
3. 도중에 만난 난관
4. 2차 주제 선정
5. 도서관 설립
6. 리딩 프로그램
7. 종합 평가
8. 미친 영향



## 5-1. 타임라인



## 5-2. 1차 주제 선정

### YI

#### 1. 놀이터

YI는 모든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개방적인 학교입니다. 공부 이전에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와 재미와 즐길 수 있는 곳, 편안한 곳이 되기 위해선 아이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했습니다.

#### 2. 사물함

길거리 아이들이 학교에 오기에 집이나 학교나 자신의 공간이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물함이 생긴다면 자신의 공간이 생길뿐더러 자신 물건에 대한 소유 인식이 생길 수 있기에 사물함이 필요했습니다.

#### 3. 부엌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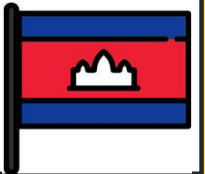
YI에 부엌은 있지만 물이 나오지 않아 문밖에 있는 하나의 수도꼭지로 재료를 씻고 설거지를 합니다. 또한 아이들도 손을 씻기 위해선 그 수도꼭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4. 교실

주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인 3층에는 교실과 칠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아이들이 공부하는데도 영향을 미쳤으며 참고로 쓰이고 있는 2개방을 이용하여 교실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 6. 전기

YI의 전기는 1층에만 흐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2층과 3층에는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으로 아이들이 생활합니다. 캄보디아에 비가 오는 우기 시즌에는 건물 전체가 어둡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5-2. 1차 주제 선정

# OPA

### 1. 체육시설

앵콜팀은 OPA를 둘러보며 OPA 사람들이 운동 종목 및 게임들을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체육 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을 챙기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고려하였습니다.

### 2. 쓰레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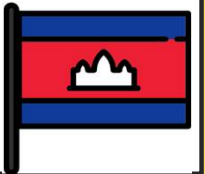
캄보디아의 주거 형태 중 수상가옥같이 2층으로 구성된 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1층에는 모두 쓰레기로 채워져 있어 쓰레기로 인한 질병, 냄새 등의 심각성을 앵콜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3. 정자

첫 OPA를 방문하였을 때 비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거나 천막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앵콜팀은 정자를 놓아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임을 갖게끔 정자를 놓고 싶었습니다.

### 4. 영화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문화적인 생활을 즐길 수 없는 주민분들께 영화관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영화를 보여주는 시스템을 형성하고 싶었습니다. 취미뿐만 아니라 주민분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5-3. 도중에 만난 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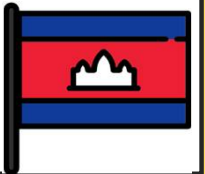
### 1. YI에서 아띠 프로젝트는 불가능

여러 가지 후보들 중 앵콜팀은 최종적으로 YI에서 놀이터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정 중 YI 건물은 렌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YI 내에서의 아띠 프로젝트는 다른 후보들을 포함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앵콜팀은 YI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아띠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는 들뜬 앵콜팀에게도 우리의 결정에 기쁜 미소를 보여준 NIMEY에게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 2. 캄보디아 YMCA로부터의 제안

앵콜팀은 아띠 프로젝트에 관해 캄보디아 YMCA로부터 OPA 커뮤니티 6개 중 한 곳에서 WATER PIPE 설치와 길 포장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물이 빠지는 곳이 없어 비가 오든 오지 않든 홍수가 나며 물이 깨끗하지 않아 냄새를 비롯한 위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을 받은 후 앵콜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띠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맞춰가며 하는 프로젝트이기에 캄보디아 YMCA의 입장을 고려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프로젝트에 앵콜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우리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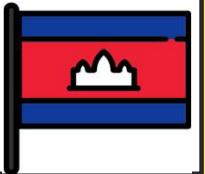


## 5-4. 2차 주제 선정

캄보디아 YMCA로부터 제안을 거절한 후, 앵콜팀은 아띠 프로젝트를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중 YLC에서 수업에  
참관하고 진행을 하면서 앵콜팀이 느낀 점은

- 1) 캄보디아 내에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방문하지 않고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2) 캄보디아 YMCA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지 않고, 오로지 글쓰기를 이용하는 교육만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3) 캄보디아 YMCA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유튜브, TV 시청으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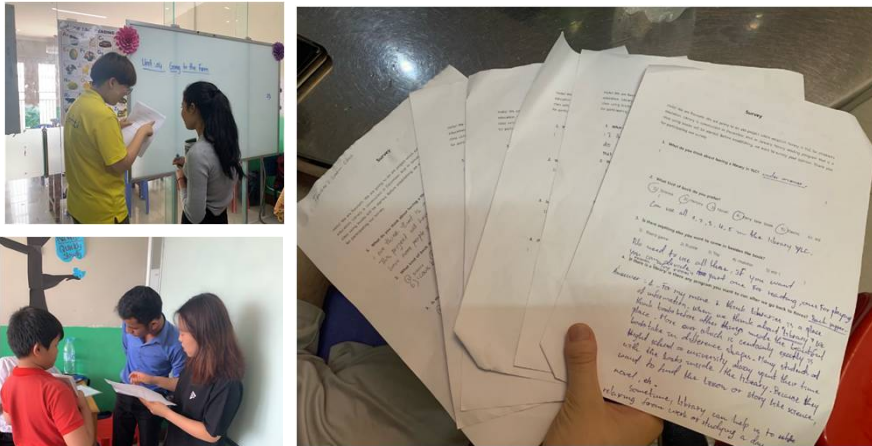
이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앵콜팀은 YLC에 도서관을 설립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책을 매개체로 이용하여 아  
이들과 공감과 소통을 증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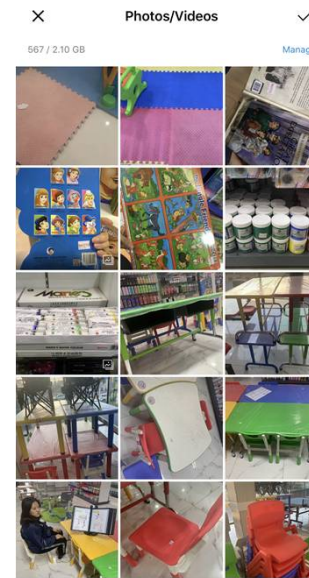
## 5-5. 도서관 설립

### <1단계> 사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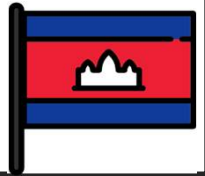
#### 1.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의견 조사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모아 책 구입 때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에 바라는 점들을 조사하여 아띠 프로젝트에 의견들을 반영하였습니다.



#### 2. 시장조사

도서관에 필요한 물품들의 가격과 품질을 알기 위해 앵글팀은 팀원들을 나눠 시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배달이 되는 곳이 적어 숙소 주변에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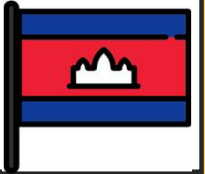


## 5-5. 도서관 설립

### <2단계> 장소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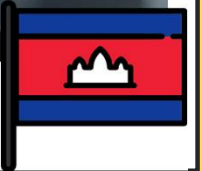
도서관으로 아띠 프로젝트가 실행된다는 것이 확정된 이후, 캄보디아 YMCA로부터 제공받았던 2층 교실 & 교실 사이에 있던 빈 공간에서 1층 놀이터 옆으로 도서관 장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실내 놀이터에 오기에 덕분에 도서관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 5-5. 도서관 설립

### <3단계> 벽 페인트 칠하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창의력을 높이고 도서관을 좋아할 수 있도록 앵콜 팀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도서관을 '바다'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박혀 있던 못들을 제거하고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사포질로 문질렀습니다. 이후 바다라는 주제에 맞게 짙은 하늘색으로 벽면을 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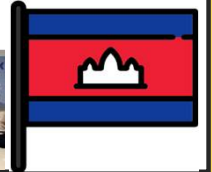
## 5-5. 도서관 설립

### <4단계> 벽면 꾸미기



고래, 해마, 물고기, 불가사리, 물개 등 바다 안에서 사는 생물들을 직접 디자인하고 그리며 색을 칠하여 더더욱 바다의 느낌을 살렸습니다. 이때까지 벽에 페인트칠만 했던 앵콜팀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YMCA 스태프들,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까지 앵콜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기쁨의  
다양한 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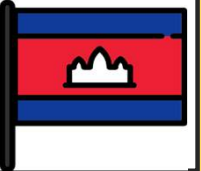


## 5-5. 도서관 설립

<5단계> 에어컨, 매트, 책장, 책상, 의자 등 구매



우리가 직접 디자인을 제작하여 의뢰하였던 책장, 일반적인 직사각형 책상이 아닌 독특한 책상, 의자 등을 구매함으로써 이곳이 도서관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에어컨이 없어 더웠던 도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책 읽기에 좋은 온도를 만들었고 조명이 2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웠던 조명을 교체하여 밝고 온화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책만 읽으러 오는 것이 아닌 조용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게끔 인형과 매트 등을 깔아 누워서도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 5-5. 도서관 설립

<6단계> 보드게임, 퍼즐, 책 등 교육자료  
구매 및 책에 라벨 붙이기

앵콜팀이 책을 구입하려는 시기에 'BIG BAD WOLF' 라고 하는 세계 도서 최대 할인전으로 동남아에서 영어책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책 전시회 행사 기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싼 가격에 500권이 넘는 책을 구매할 수 있었고 사온 책을 정리하며 라벨지를 붙여 캄보디아 YMCA 소유임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책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읽었던 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책의 장르마다 라벨의 색깔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도서관 설립을 했습니다.





## 5-5. 도서관 설립

짜잔! 도서관 설립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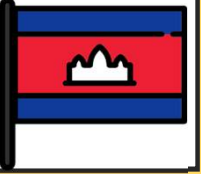
코디인 Charlie는 앵콜팀이 완성한 도서관에 감명을 받고 개관식까지 열어 주었습니다. 이로써 도서관을 개관했다는 것을 알리고 늘 기대 찬 눈빛으로 도서관에서 준비하는 것을 봐온 아이들도 자유롭게 도서관을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6. 리딩 프로그램



아띠 프로젝트로 도서관을 설립한 후에 연계된 프로그램인 Reading Program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자신의 생각, 느낀 점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친밀감과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에게 Reading Program을 설명해주고, 크메르 어, 영어를 가지고 아이들과 Reading Program을 진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앵콜팀이 캄보디아를 떠나더라도 계속 Reading Program을 캄보디아 YLC 교육의 일환으로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퍼즐, 레고 등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여주는 활동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 5-7. 종합 평가

1. 예상보다 더 긴 기간을 도서관 프로젝트에 투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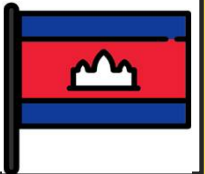
-> 12월 내에 도서관 설립을 끝내고, 1월에는 리더프로그램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도서관을 다채롭게 이용하는 방법을 예상했지만, 중간에 일정 조정과 홈스테이 등으로 예상보다 더 긴 기간을 도서관 설립에 시간을 보냈다.

2. 책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다.

->사전 설문조사대로 책의 종류를 다양하게 사기 위해 많은 서점을 가보았지만, 인물, 역사에 대한 책들은 현저히 적어서 사기가 쉽지 않았다. 크메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현지 코디네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구입하지 못했다.

3. 아이들의 도서관 이용법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도서관 이용법을 설명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규칙을 어기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 5-8.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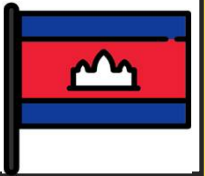
### <앵콜팀에 미친 영향>

1.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서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서 필요한 것이 무엇지에 대해 고민하는 프로젝트가 되었다.
2. 선생님들과 현지 유관계자들과의 수많은 토의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었고, 캄보디아 사람들과 하나의 목표를 위한 연대의  
식을 느낄 수 있었다.
3. 초기 기획부터 추진성과까지 앵콜팀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책임지면서  
책임감과 목표를 위한 과정을 단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 <기관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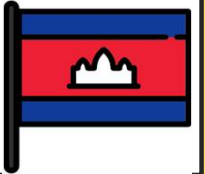
1. 아이들이 학교에 오가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아이들과 학부모  
가 학교에 대해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다.
2. 사용하지 않던 공간의 활용과 학교 내 여기저기 흩어진 책들을 정리하고  
한 곳에 모아 관리와 이용에 용이하게 되었다.
3. YLC 뿐만 아닌 YI에도 다양한 책을 공급할 수 있어 YMCA 내 학교  
에 수업의 다양성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 6. MEMORY IN CAMBO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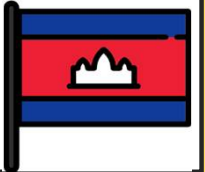
1. 프놈펜 둘러보기
2. 찰리의 고향
3. 캄보디아 여행기
4. Peace youth 여행단 방문
5. Panha의 크메르어 수업
6. WITH 캄보디아인 사람들
7. 정은'S BIRTHDAY
8. 우리들의 COOKING
9. 정석'S THEATER
10. 새로운 만남
11. GOOD BYE CAMBODIA



## 6-1. 프놈펜 둘러보기



처음 캄보디아에 도착을 하고 우리에게 반갑게 다가와 준 첫 사람은 우리의 친구, LOT이었습니다. 휴일을 이용해 투올 슬랭 박물관, 프놈펜 왕궁, 센트럴 마켓, River side, 나이트마켓까지 LOT의 소개로 프놈펜을 관광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프놈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고 이것은 캄보디아에 살아가는데 첫 발판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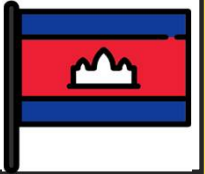




## 6-2. 찰리의 고향



캄보디아 명절인 Pchhom ben 기간을 이용하여 찰리의 고향인 KAMPONG THOM에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잠자는 곳부터 음식, 생활, 교통수단 등 전부 현지식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캄보디아의 명절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만난 찰리의 가족들은 지금까지 연락을 할 정도로 앵콜팀에게도 잊지 못할 인연을 맺었습니다.



## 6-3. 캄보디아 여행기



새벽 4시부터  
준비하여 본 앙코르  
르와트 일출



앙코르와트 WITH 우리의 시그니처 포즈



Pop street에서  
즐긴 팀원들과의  
맥주타임  
On Christmas

수상 가옥들을 볼 수 있었던 톤레삽 보트



홈스테이를 끝나고 SIEMREAP에서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던  
앵콜팀!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앙코르와트에 방문하여 관광  
하고 동남아 최대 호수 톤레삽에서 보트 타기 등을 즐길 수 있었  
습니다. 오랜만에 활동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과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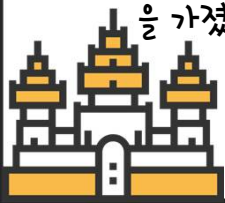
그토록 노래 부르던 호텔 수영장





## 6-4. Peace youth 여행단의 방문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캄보디아에 Peace youth 여행단이 방문하였습니다. YLC 교실을 페인트 하는 노력봉사와 YI에서 여러 가지 게임 진행, 체육활동, 한국 음식 제공 등 교육봉사를 하였습니다. 그 속에 아띠들은 페인트를 같이 하였고 YI에서의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은 킬링필드에 대해 알 수 있는 뚜얼슬랭제노사이드 박물관에 방문하여 캄보디아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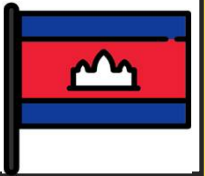




## 6-5. Panha의 크메르어 수업



매일 일과가 끝난 후 앵콜팀은 한 시간씩 크메르어 공부를 했습니다. 앵콜팀의 크메르어 수업의 선생님인 panha는 우리와 비슷한 또래에 웃음이 많아 5개월 동안 앵콜팀과 친하게 지냈는데 특히나 Panha와 정근 단원의 케미는 수업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배운 크메르어는 캄보디아인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활동하기에 원활하고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 6-6. WITH 캄보디아 Y 사람들



OPA담당자인 vothy&chea와의 식사

한국을 좋아하는 sreynit과의 식사



우리들의 모범teacher였던 meng과의 식사



YLC 선생님들과의 꾸이띠우



우리의 친구 lot, 앵콜팀의 엄마 soji, 앵콜팀의 또 다른 멤버 Charlie brown과 함께 먹는 김치전



YI 디렉터 nimey, YI 선생님 thida와 운동 후 즐기는 꾸이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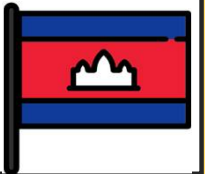
## 6-7. 정은'S BIRTHDAY



앵콜팀의 박정은 회장님께서 23번째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회장님을 위한 선물을 사서 선물 증정식을 가졌습니다. 그 중 오정석 단원은 I ♥ Cambodia 티셔츠를 사와 회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 다. 회장님께서서는 다른 팀원들을 위해서 치킨집을 예약하고, 자신의 사비를 써서 팀원들에게 치킨을 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회장님의 23번째 생신을 위해서 현지 코디네이터인 찰리는 Cake를 준비하여 회장님의 생신을 축하하 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회장님의 23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은투리\_HBD

- 앵콜팀 사원 일동 -





## 6-8. 우리들의 COOKING



장보다 달똥집  
발견하여 무작  
정 사서 만든 달  
똥집



정근단원이 국수  
먹고 싶다고 짙  
짙겨려 탄생한  
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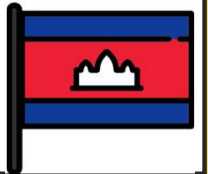
정근단원이 초  
밥 먹고 싶다  
고 짙짙겨려  
탄생한 초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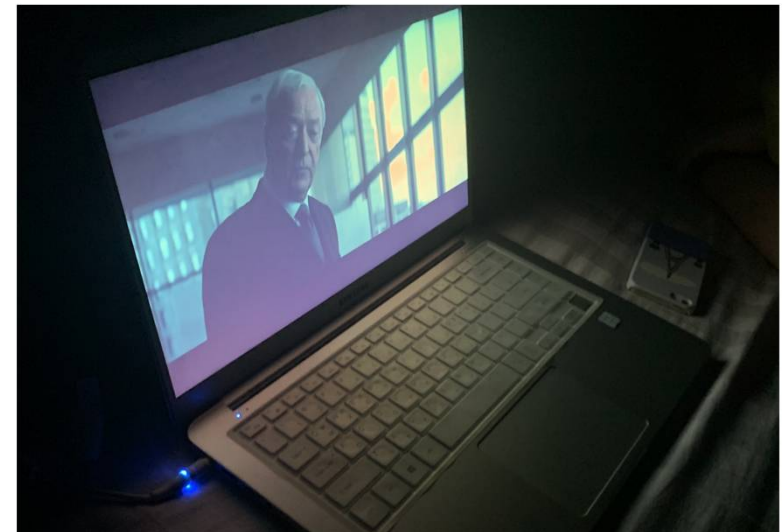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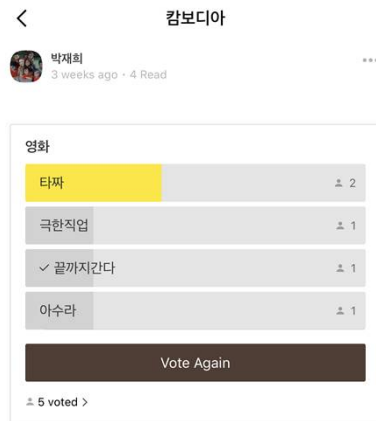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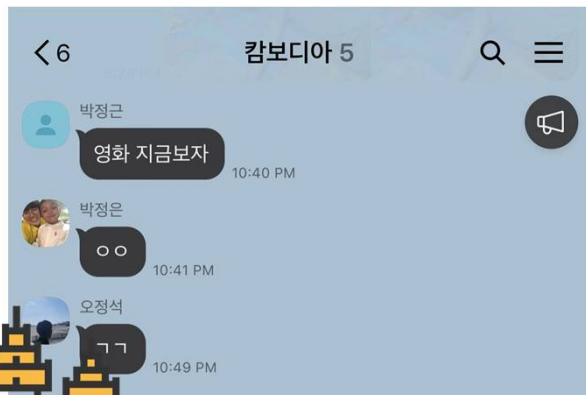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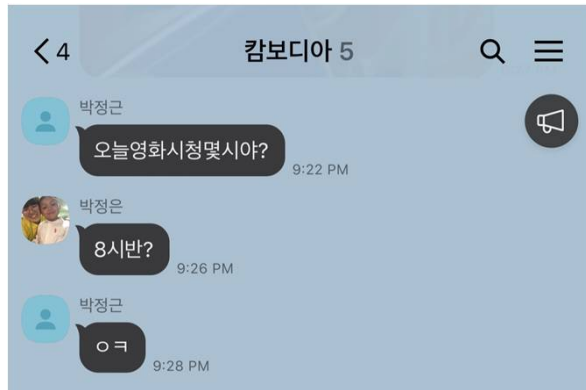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여 정석단원  
과 정은 단원이 만든 떡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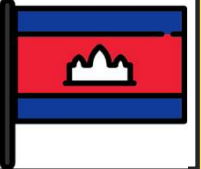
재희단원이 창작한 캄보디아VER.  
비빔밥



## 6-9. 정석'S THEATER



팀원들 중 가장 큰 침대를 쓰고 있는 정석 단원의 침대는 암묵적으로 영화를 보는 장소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주로 밤 8~10시에 상영되며 앵콜팀 5명이 다 같이 취미를 즐기고 활동 외에 또 다른 추억을 쌓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 6-10. 새로운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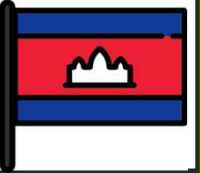
1월 27일  
드디어 뵙게 된 현지 캄보디아 법인Kb와의 점심식사



1월 19일  
캄보디아 YMCA에 방문하신 남부원 총장님과  
이윤희 총장님과의 식사



1월 23일  
Kb 심장병 행사에서 만나 인연이 된  
구세군 김홍수 사령관님과의 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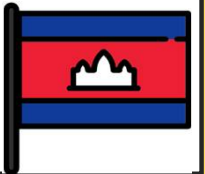




## 6-11. GOOD BYE CAMBODIA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5개월이라는 정해진 기간을 수행하고 돌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끝은 있었지만 마음 속 끝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떠나가는 걸 아는 아이들은 떠나기 며칠 전부터 저희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서로 완벽한 소통은 되지 않지만 가슴 속에서 나오는 소통으로 우리는 문화,국적을 떠나서 즐거운 아시아의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YLC, YI, 캄보디아 YMCA 관계자들과의 인사를 통해서 점점 이별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저희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온다면 다시 새로운 시작도 존재하는 법 또한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앵골림과 캄보디아의 즐거운 친구들은 다시 또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 7. FEE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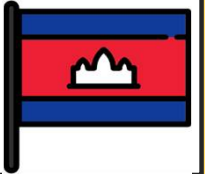
1. 오정석\_SEYHA

2. 박정근\_DARA

3. 박정은\_PKAY

4. 박재희\_BOPHA

5. 정유선\_CHARI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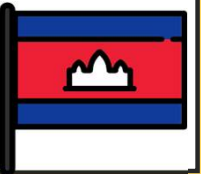




## 오정석\_SEYHA



5개월간의 활동을 뒤돌아보며 오길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국내 활동으로는 겪어볼 수 없었던 모든 상황들도 새롭고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재미있다. 활동, 재미, 환경, 문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었으며 알차고 유익한 캄보디아의 생활이었던 것 같다. 5개월이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캄보디아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5개월 동안의 캄보디아에 생활은 나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기억이며, 평생을 살아가며 생기는 일 어디에든 영향을 미칠 활동이었다.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언제나 우리를 향해 웃어주는 아이들의 환한 웃음과 장난 그리고 우리를 반겨주는 캄보디아인 관계자 분들 때문에 활기차고 즐거운 라온아띠가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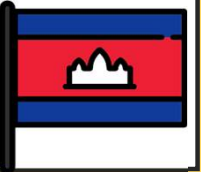




## 박정근\_D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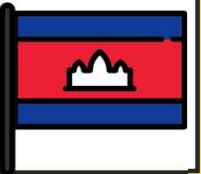
누군가는 20대는 청춘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에게 20대의 시간은 조급함의 연속이었다. 조급함은 불안감을 키웠고, 불안감은 압박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압박감은 돌파구를 필요로 했고 난 돌파구로 라온아띠를 선택하였다. 어찌면 도피였다. 누군가는 나에게 도피로 가기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아까울 거라고 얘기를 했다. 나도 긴가민가하면서 시작한 라온아띠였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캄보디아에 가서 봉사할 하는 5개월동안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은 10년 넘게 책상에 앉아서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웠다. YLC, YI아이들과 OPA노인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느낀 감정들은 그동안 함께했던 열정의 고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일깨워주었다. 한국에서 타인을 보면서 급히 따라가다 보니 어떤 게 나인지 잊어가던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5개월의 캄보디아였다.



## 박정은\_PKAY



5개월 간 라온아띠를 통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배웠다. 사실 캄보디아에 가기 전까지는 부담감이 컸다. 낯선 환경에서 외국인들과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하루 함께하는 시간들이 모여 캄보디아 아이들, 스텝 분들과 우리 팀은 신뢰와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덕분에 날이 갈수록 캄보디아에 있는 시간들이 더욱 재미있고 즐거웠다. 돌이켜보면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았다. 넘치는 사랑을 준 아이들에게 그저 고마울 뿐이다. 라온아띠를 계기로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고 앞으로의 내 삶에도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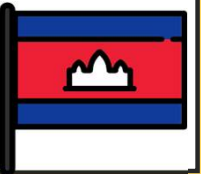




## 박재희\_BOPHA



지난 반년 간의 라온아띠 활동을 통해서 저는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얻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른 외국인들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라온아띠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개월 동안 캄보디아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모파 선생님이라 부르며 나에게 안기고, 손 잡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과 관련된 일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았던 저의 삶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제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캄보디아에서의 라온아띠 생활이 제 미래에 많은 영향과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생활하며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준 팀원들에게도 고맙고 캄보디아 YMCA 사람들과 찰리 간사에게도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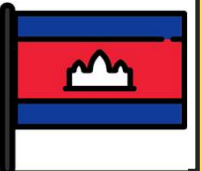




## 정유선\_CHARIYA



지난 캄보디아에서의 삶은 꿈 같았다. 한번도 해보지 못한 팀 생활, 교육 활동, 해외에서의 5개월 동안의 거주까지.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재밌었으며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하였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웠고 낯설었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캄보디아의 느긋함과 팀원들과 살아가는데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적응을 하니 캄보디아에서의 삶이 너무 재밌고 신났다. 우리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대화를 하며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도 있었고 내가 준비해 간 수업계획들로 수업을 하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따라와 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또한 티격태격하며 팀원들끼리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들도 보냈다. 이 모든 것들은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5개월 동안 나도 모르게 성장한 시간들이었다.



Thank you

អរ

គុណ  
។